

2020년도 수시모집 큰 성과 얻어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동서대의 미래



▶동서대학교 학교 전경

동서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 알찬 결실을 거뒀다. 어느 지역 빠지지 않고 전국 각지의 대학 수험생 총 13,841명이 우리 대학에 지원했다.

9월 10일 수시모집 마감 결과 1998명 모집(정원 외 130명 포함)에 13,841명이 지원해 6.9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68명을 모집한 정원 내 경쟁률은 7.05 대 1에 이른다.

특히 간호학과(사회배려자)가 37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사선학과(교과성적) 32.05 : 1 ▲경향행정학과(자기추천자) 30.25 : 1 ▲치위생학과(일반계 고교) 22.57 : 1 ▲임상병리학과(사회배려자) 22.00 : 1 ▲일본어학과(사회배려자) 19.00 : 1 ▲보건행정학과(교과성적) 16.75 : 1 ▲방송영상학과(자기추천자) 15.00 : 1 ▲사회복지학부(교회 담임목사) 14.50 : 1 ▲체육학과(사회배려자) 13.00 : 1 ▲운동처방학과(자기추천자) 13.00 :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올해도 수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달성한 것은 그동안 이룬 성과에 미래를 위

한 투자와 노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미래형 대학 동서대의 혁신적인 변화에 함께 발맞춰 갈 예비 신입생들의 지원이 학교를 더욱 빛내줄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줄 앞선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이다.

2020년도 수시모집 입시전형 개요에는 정원 내 일반계고교 전형, 교수추천자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교회 담임목사 추천자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평생 학습자 전형이 있고, 정원 외 특성화 동일계 출신자 전형, 농어촌 출신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다.

동서대는 미래형, 국제화,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내세웠다. 시대를 읽는 미래형 교육 서비스와 전공의 경계, 국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을 실행 중이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학생이 해외로 떠나고, 1,200여 명의 외국 학생이 유학 오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났다.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중이다.

수시로 모집한 교회 담임목사추천자, 재외국민 전형과 평생학습자,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 학생들은 얼마 전 10월 5일에 주례캠퍼스 뉴밀레니엄관 2층 소향아트홀과 전자정보관 2503 강의실에서 면접고사가 진행됐다. 이후 다가오는 10월의 토요 일마다 운동처방학과/체육학과,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디자인학부, 임권택 영화 예술대학 뮤지컬과, 임권택 영화 예술대학 연기과의 실기고사가 주례캠퍼스와 해운대 센텀캠퍼스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학의 국제화는 동서대의 강점 분야이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외국의 우수 유학생 1500명이 동서대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는다. 한국 대 외국인 학생 비율 10 : 1.5로 세계적 캠퍼스에 발돋움했다. 추가적으로 동서대는 미국·중국·일본·독일·헝가리·리투아니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파견돼 학업을 이어가거나 탐방 활동을 한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글로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미주 캠퍼스·중국 캠퍼스 설립, 복수학위 과정 개설,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 등 수많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를 가동 중이다.

취업 및 창업 실적도 부울경 선두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체계 상담, 취업박람회, 창업경진대회 등의 지원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동서대는 최근 5차 중장기 발전 계획인 '동서 비전 2030'을 확정하고 대학 혁신을 통해 미래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미국 혁신대학의 대명사 격인 미네르바 대학을 한국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동서대를 선택해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동서대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단 한 사람도 낙오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4년간의 동서대 과정을 마치면 모두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깨를 펴고 활약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동서대의 목표"라고 힘써 말했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방송영상학과 대상 수상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자



▶팀 '모노'의 단체사진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이용진, 권태호, 강현준, 배연술 씨가 철곡군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평화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의 소중함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의 의미를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된 유엔군을 기억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자 영상광고·인쇄광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상작인 '기억'은 영상광고 부문에 출품하여 대한민국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낙동강'에 있었던 철투를 철곡은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을 많은 시민에게 전해준다는 취지에 제작됐다. 더불어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의 소중함과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특히 유엔공원과 국화, 국군장병을 오버랩하여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영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세 편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한류문화 축제 '케이콘(KCON) 2019 로스앤젤레스'에서 10만 관객 앞에 선보였다. 팀원들은 "세계인들에게 한류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에서 작품이 상영돼 매우 큰 영광이다"라고 느낀 바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열

리는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대상 수상의 영광을 얻은 팀 '모노'는 팀장 이용진 학생을 중심으로 모여 기획, 사운드, 편집,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팀원 4명의 분업을 통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에 각 한 부분씩을 담당하여 많은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기획을 맡은 이용진 학생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합을 맞춰 공모전에 참가했다. 예상치 못한 대상을 수상했기에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전했다. 사운드를 맡은 권태호 학생은 "운이 좋게 대상을 거머쥐었다. 대상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도 파란만장한 청춘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편집을 담당한 강현준 학생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든 영상을 좋게 봐주셨다. 이 기회를 계기로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촬영을 담당한 배연술 학생은 "수상 소식도 감사했지만 특히 대상 소식에 놀랐다.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노력하여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끝으로 팀원을 모두가 이번 작품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 및 유엔군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대상작은 지상파에 상영 후 현재 중영됐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아시아 미래 디자인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선정

2019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향후 6년간 12억 국비 지원



▶2019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봄학술대회 기념 촬영

동서대학교 아시아 미래 디자인 연구소가 한국 연구재단 주관의 2019년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교육 연계형에 선정됐다. 통칭 아미연은 세계적인 한국과 지역 문화, 문화 정체성, 디자인 연계 연구 및 교육, 창의성, 놀이화, 매체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연관된 한국 문화 기반의 창의적 무형 교육 매개를 개발과 놀이화 요소를 접목시키는 연구 진행으로 이 사업에 뽑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위의 연구를 주제로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최대 1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놀이가 아닌 분야에서 지식 전달,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경영 활동

등에 놀이의 기계적 구조와 사고방식과 같은 놀이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은 기존의 신흥지역연구 지원 사업,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 사업을 개편, 통합하여 인문사회 연구소로 추진하는 2019년 신규 사업분야이다. 올해 첫 사업에 동서대 아미연이 선정됐다. 지난 5월 말 신청서 제출 이후 1차로 4개 팀에 아미연이 선정되었고 8월 초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선정 통보를 받았다.

동서대학교 부설연구센터인 아미연은 이번 사업에서 '실정한 연구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전통 원천(소스)에 대한

아미연만의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해 연구목표를 수행하고, 특히 뛰어난 연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미연은 2017년 7월 설립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인문연구회, 지역 문화연구회, 교과 개발 위원회 등의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봄가를 학술대회 및 다양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며 착실하게 실적을 쌓아왔다. 또한, 아시아와 한국 문화예술 기반의 한국적 디자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아시아 분야의 거점 연구소로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장주영 아미연 소장은 "본 과제 선정으로 신규 교과 개발과 교과 개선 연구, 온라인 강의 및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교수 학습법 개발 등 디지털 응용기술을 접목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연구소들이 연구물 생산에만 집중해온 데 비해 동서대 아미연은 생산된 연구 결실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온 실적이 높이 평가됐다.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을 융합하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중국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와 협정

중국 대학과 교류 확대 및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



▶중국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와 동서대 협정 체결 서약의 모습

동서대학교는 우수한 중국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중국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와 상호 협력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을 위해 장재국 총장과 김언하 중국 사업본부장, 한경호 국제처장이 8월 2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동서대와 중국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동서대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협정 체결의 자리에서 정지아차이 주임은 "한중 합작대학 설립을 비롯해 동서대가 그동안 한중 교육 분야에서 쌓은 업적은 대단하다"라며 전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국 유학 서비스 센터와 동서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교육개발과 한중 고등교육기관 간의

깊밀한 협력에도 양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재국 총장은 "동서대는 한국에서 국제화 분야 선두를 달리는 대학이다. 특히 중국 대학과는 합작대학 설립, 복수학위 개설, 교환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중국 대학과의 국제화 속도를 더 높이는 데 힘을 쏟으려 한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7월 중국에 유학 가는 외국 학생에 대한 중국 법률과 유학서비스센터의 방침이 강화된 이후지만 양 기관 간의 대화 자리에 이어 협정식이 긍정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의 중국 대학과의 교류와 재학생들의 중국 유학이 기대된다.

김태항 기자
hyangsun3311@gmail.com

동서 국제디자인 위크 2019 개최 글로벌 디자인 대학으로 거듭나다

9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아시아미래 디자인연구소 아트 소향 갤러리에서 동서 국제 디자인위크 2019가 개최되었다. 3일 동안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Lightmorphing" 전시, "Design as Change Maker"를 주제로 한 DESIGN TALKS가 9월 4일 주례 캠퍼스 BI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3일부터 시작한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라이트 모ρφ링 전시에서는 빛, 구조, 그리고 공간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 디자인을 소개한다.

해당 전시회의 이름인 '라이트 모ρφ링'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며 형태가 결정되고 공간 사이로 얹히고 증폭되면서 역동적인 설치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전시에서는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스케치, 아이 메시 소재로 특수 제작된 태피스트리 설치 작업과 영상을 통해 라이트 모ρφ링 개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추가로 이코 밀리오레 교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작업한 동서대 학생들의 창작 작품 또한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전시되었다.

해당 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했다. 이후 9월 4일에 개최된 디자인 토크에는 권영길 교수 (한국)와 이코 밀리오레 교수(이탈리아), 마이클 프린스 교수(미국), 구한시 교수(중국), 루딩방 교수(대만) 총 5명의 각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거장 교수진들이 참여하여 기능, 영향, 생활방식, 행동, 사회문제 등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과 역할,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논의하며, 디자인이 사회, 문화, 산업 변화의 중심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강의하였다. 교수진들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 진행하였던 '비전 선포식'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김순구 디자인 대학장, 강경태 한국 디자인 진흥원장, 박인학 월간디자인 대표, 하현일 부산시 건축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석좌·객원교수 임명식 및 디자인 대학 국제교류 공로상 수여식과 석좌교수·객원교수 위촉식 및 국제 교류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장제국 총장은 선포식에서 "동서대는 1992년 설립 이후 디자인을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했다. 우수한 교수진을 대거 모였고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장제국 총장 연설모습

했고, 그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한강 이남의 최고의 디자인 스쿨로 성장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동서대는 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떠나 세계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 디자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디자인 특성화 2단계를 선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순구 디자인 대학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을 초빙한 이번 행사는 디자인 아티스트 콘텐츠 등 특성화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동서대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동서대 디자인 교육은 확실하게 글로벌화 전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교수들의 강의를 시작되었다. 권영길 교수는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직업은 정치가, 개량주의자, 혁명가, 교육가, 예술가, 디자이너가 있으며 변화의 최고 직업은 디자이너라고 말했다. 또한 디자인

너의 다른 이름은 '변화 창조자'이며,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망한다.", "인간은 왜 변화하는가? 왜 디자인하는가?", "인간의 최초의 돌도끼 디자인의 시작은 생존이다."라고 강의했으며 추가적으로 "모두가 디자이너인 사회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환경구조를 어떻게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바꿀까를 고민하는 것 등의 모든 생각들이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명제이다.", "변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꿈은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된다", "잠들성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확신이 있는 것은 변화의 적이다."라고 강의했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의 공동대표이며, 최근 동서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코 밀리오레 교수는 '혁신은 인간 중심의 패턴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강의

했다. 세 번째로 마이클 프린스 교수는 '사회적 영향을 위한 설계'에 대해, 구한시 교수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 관해 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9월 5일 목요일 샌텀캠퍼스 아트 소향 갤러리에서 이코 밀리오레 교수와 권영길 교수가 부산 전시와 연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특별한 강연을 열었다. 해당 강연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일반인 모두에게도 개방되었다.

또한 김순구 디자인 대학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을 초빙한 이번 행사는 디자인 아티스트 콘텐츠 등 특성화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동서대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동서대 디자인 교육은 확실하게 글로벌화 전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디앰스기

나의 인생 수업

이상준(메카트로닉스·1)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고등학교와 다른 수업방식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다. 여러 강의를 중 일 학년을 위한 '디앰'이라는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디앰 시간에 지도 교수님과 함께 나의 장단점, 적성과 진로 등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가고 배워나갔다.

지난 1학기 디앰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튜브 촬영'이다. 조원들끼리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재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어떤 것을 주제로 정해 영상을 촬영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주제에 관해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조원이 많은 유튜브(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리뷰 영상을 올리니 리뷰 영상을 찍자고 하였고, 평소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사용하는 립밤을 주제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립밤 리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어려웠다. 그렇게 유튜브에 업로드 한 우리 조의 영상이 1등으로 뽑혔고, 이 기회를 통해 중국 디앰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난 3월, 교수님께서 디앰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 연수를 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노력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하였다. 중국 연수를 가기 전 중국의 문화·사상에 관련하여 '중국 문화의 이해, 중국의 부상과 국제 정세, 중국 역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원래 연수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상 중국으로 변경되었다. 중국 연수는 생각보다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다.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강남수향을 대표하는 마을인 오진을 모델 삼아 새롭게 기획하고 만든 곳인 고북 수진을 구경하고 케이볼카를 타고 산위에 내려니 꿈에 그리던 만리장성이 보였다. 계속 걸어야 해서 힘이 들었지만 만리장성을 보니 힘들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오히려 약간의 힘들어 만리장성을 보는데 더 진한 여운을 남겨준 것 같다.

그 다음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금성에 갔다. 자금성은 입장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여권과 가방을 검사하였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힘겹게 입장하고 나니 눈앞에 펼쳐진 자금성은 정말 거대했다. 이후 '더 플레이스'라는 현대의 중국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갔다. 그곳에는 250여 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다. 그 커다란 스크린에는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금화가 모여있는 분수 등 다양한 영상이 나왔다. 오전에는 중국의 과거를, 오후에는 중국의 현대를 체험했다. 기분이 이상했다. 과거 중국의 건물들과 현재 과학기술 속에서 발전해나가는 중국의 기술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중국의 색다른 매력에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798 예술구'에 갔다. 이름이 특이하여 알아보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며 이곳에 있던 공장들이 베이징 오피스로 옮겨서 건물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자, 예술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창작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군수공장이었던 곳에 명칭도 없고 그냥 번호로만 불렀다고 한다.

798예술가들이 처음 전시장을 차린 곳이 798번호 공장이었기에 '798 예술구'가 된 것이다. 명칭의 유래를 알고 나니 더욱 특별하게 여겨졌다. 중국에 오기 전 중국 관련 강의를 듣고 왔지만 확실히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즐겁고 신기했던 3박 4일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녀오고 나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챙겨보는 등 관심이 생겼다. 또한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 보는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며 친구도 새로 사귀었다. 같은 학교일지라도 다른 학과여서 만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어 기분이 좋다. '디앰'이라는 수업은 새내기인 나에게 갑자기 어릴 적 해준듯이 동시에 나에게 친구도 만들어 주고, 견문도 넓혀주었다. 한 학기만 진행하였을 뿐이지만 강의를 들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 2학기 강의를 듣고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민석 문화·예술 프로그램 열려

지친 마음 힐링



▶음악감상회 진행 사진

지난 18일, 민석 도서관 BOOK CAFE에서 제11회 민석 음악회가 열렸다.

'가을, 첫사랑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브레멘 국립예술대학 음악대학 성악과 석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소프라노 박성익님과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일 트로바도레>, <마술피리>,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도 출연하신 테너 최일갑님이 해설과 함께 듀엣으로 멋진 음악을 선사했다.

이날 Lascia ch'io pianga(오페라 라날도 중) 나를 울리게 하소서-Handel, Ombra mai fu (오페라 크세르세스 중) 사랑스런 나무 그늘이여-Handel, 신아리랑-김동진, 저 구름 흘러가는 곳-김동진, 첫사랑-김효근 등의 곡부터 O mio babbion caro(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G.Puccini, Lippen schweigen(오페라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Lehar, All I ask of you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ake me as I am,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등 뮤지컬로 유명한 곡들까지 약 50분가량 빠짐없이 들려주며, 아름다운 선율을 하여 금성름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했다. 수많은 학생들은 민석 도서관 북카페에 모여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였다.

많은 여운을 남겼던 제11회 민석 음악회가 2019 2학기 민석 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으며, 10월 2일 미술 특강 '예술, 창조 플랫폼', 10월 16일 민석 음악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음악감상회, 아당발레 '지젤' 발레 특별 감상회 #5,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슬기로운 언어생활', '자연스러움이 기술', '당신을 믿어요', '외로운 내가 외로운 나에게' 등의 작가로 유명한 김윤나 작가와의 만남 '상처를 감당하는 방법'이 민석 도서관에서 예정되어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 본격적으로 추위지기 시작하는 11월 13일에 '나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현악4중주곡 제6번 F장조 아메리

카', '술라브 랩소디 A 플랫 장조 Op.45의 3' 등의 곡들로 유명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e단조 신세계로부터' 음악감상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20일에는 '예술, 시대를 앞서다'를 주제로 잡은 미술 특강이 예정되어있다.

대망의 마지막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송아', '아베 마리아', '그대는 나의 인식자', '들어라 들어라 종달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대환상곡 C장조 Op.159', '현악 4중주곡 제14번 (실내악곡) d 단조 죽음과 소녀' 등의 곡들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8번 '미완성'의 음악감상회가 12월 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학업과 공모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외부 활동 등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된다. 평소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지식도 쌓고 지친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제4회 동서교류제, 마이 리틀 교류제

소통과 화합의 장



▶마이 리틀 교류제 팸플릿 사진

이러 김민우(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대표)는 다양한 학생들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한 메카 프린스 1호점을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동서교류제는 보다 다양한 학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평소엔 알 수 없었던 타학과나 동아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진(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방송영상전공)은 교류제는 평소 만나지 못하는 다른 학과의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어색하더라도 그 경험을 토대로 타인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학기에 한 번 있는 뜻깊은 행사 모든 재학생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민경 기자
rudvmfhelxp@gmail.com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

중국어학과 졸업생 차영혜씨 수기



▶중국어학과 졸업생 차영혜씨

졸업생 차영혜씨는 동서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명목으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을 하였다. 3년간의 노력을 통해 첫 번째 도전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동안 차영혜씨가 보냈던 학창시절, 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수기를 통해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중국어학과 및 일본어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졸업한 12학번 차영혜입니다.

동서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 글에서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입학 당시 교내에서 진행하던 한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생활 4년 내내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저에게 색다르고 귀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현지 언어로 수업하고 합숙을 통해서 연속성 있게 교류하며 그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해감들이나 가치감들을 맛있게 느끼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훈련을 거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인 중국어와 일본어 외에

영어라는 언어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학부를 마쳐가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던 저는 고민한 끝에 미국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험을 했기에 이후로는 그 외의 것을 접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 저에게 가장 알맞은 곳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학부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갈등 발생 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교내에서의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예시로 들며 강조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은 기대했던 대로 제가 접할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 자체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이 영



▶국제모의투자중재 지역대회에서의 단체 사진

어로 수업이나 과제 및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이들과 함께 수업에서 발맞추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다. 매일 여러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 수업 전 날 미리 관례를 공부해야 하는 데 첫 학기에 저는 한 과목의 관례 중 단 하나를 읽는 데에도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의심을 끊임 없이 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변호사 시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원의 3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12월 졸업으로부터 두 달 후인 2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미국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한국 소재의 대학원이므로 시험을 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여정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따릅니다. 그 비용은 물론이고 주변의 기대로 인해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실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를 메꿀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모두 듣고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을 모두 사 모조리 푸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준비를 하였기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린 결과 초시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정식 재판이 있기 전 사건의 당사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서로 확보하는 절차에 대응을 하는 곳입니다. 주로 문서에 대해 첫 검토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약하거나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할지 부지런히 생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지만 제가 겪은 경험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어 자그마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갈고닦아 항상 준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학생 입교식 개최

세계 46개국 354명 해외 유학생 유학 오다



▶입교식에서의 외국인 학생들의 모습

동서대학교는 지난 9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수시 입시를 마감하였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국 학생들에게도 인지도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2학기에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이 46개국에 354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대학에서는 많은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을 지닌 학생들이 우리대학을 선택하였으며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유학 유형도 학부 복수학위, 석·박사 과정, 학부 교환학생, 학부 입학, 언어연수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동서대학교는 9월 11일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환영하는 '2019학년도 2학기 외국인 학생 입교식'을 개최하였다. 입교식에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참석하여 함께 입학을 축하해 주었다. 임권택 예술대학의 학생들은 신나는 공연을 통해 유학생의 입학을 맞이하였다.

이날 ▲각 학과별 담당교수 및 수업전담 교수 소개 ▲학과 및 학생 소개 영상 상영 ▲재학생 환영사 ▲신입생 소감 발표 ▲장제국 총장 축사 등으로 입교식이 진행되었다.

축사에서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는 한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대학이다. 교내에서 특성화된 분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서대학교에 정말 잘 왔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요즘 뜨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 진로 결정이 고민이라면



▷사진출처 - 픽사베이

어느덧 올해의 반이 지나갔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을 4학년 학생들에게는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이다. 이미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여 막막한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요즘 뜨고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예인관리사

연예인관리사란 말 그대로 가수, 배우, 개그맨 등의 일정을 계획 및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 연예인과

연예인관리사 간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 주며 연예인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실정이다. 최근 연예인관리사를 교육하는 관련 기관도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 또한 자격증 시험도 존재하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 시험도 존재할 만큼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다.

○연예인관리사 자격시험

- ▷1차 시험 (3과목) : 연예인직업윤리, 대중문화론, 연예관련법(각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2차 시험 (2과목) : 연예기획및제작, 연예인관리실무(각 과목당 25문항, 총 50문항)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주로 동산(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 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일을 한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 ▷1차 시험 (5과목) : 민법,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2차 시험 (3과목)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노인스포츠지도사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노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에 노인 관련 직업이 떠오르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노인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이러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필요한 데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도와줄 지도자가 바로 노인스포츠지도사이다.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뜻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 ▷필수과목 : 필기·실기·구술·연수

- ▷필수과목 (1과목) : 노인체육론
-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 ▷필수과목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방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자료출처 : 커리어넷,
국민체육진흥공단, 네이버 지식백과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IICCC 2019 초대작가전 특별상 선정 쾌거

완성도와 가치를 인정받는 만화로 이어 나갈 계획



▶특별상에 선정되어 기쁜 학생들의 모습

최근 러시아에서 개최된 2019 국제학술대회(한 파트인 '2019 초대작가전')에서 동서대학교 학생 3명이 특별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3명의 학생은 과에서 다양한 만화 장르의 기획과 제작을 주로 학습하고 있었으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각각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 출품하였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한 국제학술대회는 국제문화기술진흥원,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융복합지식학회, 한국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 분야 간 융합과 소통을 위한 국제회의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번 학생들의 출품작들은 최동혁 교수의 지도와 동서대 사업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최동혁 교수는 수상한 결과물은 참여 학생들의 창작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표현된 작품으로 국제 만화 영화제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2019 초대작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강영서씨, 김우진씨, 정희진씨의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강영서씨 '어드벤처 앤드 호프' 작품 특별상 수상 : "제 작품인 '어드벤처 앤드 호프'는 제가 소속된 팀에서 제작 중인 단편 만화 '공평선'의 등장인물을 한곳에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 제작에서 수상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최동혁 교수님과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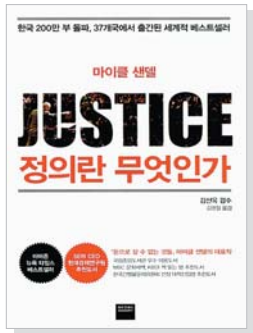
김우진씨 '더 라이트 인 더 새도우' 작품 특별상 수상 :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면서 이 작품 한 장에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작품으로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희진씨 '브레이킹 더 에그' 작품 특별상 수상 : "동서대 사업단을 통하여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어 감사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분발할 것이며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내어주고 싶습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책 속의 풍경

진정한 정의란 답이 없다



- 책 제목 : 정의란 무엇인가
- 책 저자 : 마이클 샌델
- 출판사 : 와이즈베리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책 중 하나이다. 힘이 권력이지 정의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내던지고, 생각하게 해 주는 책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동의할 수 있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서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이클 샌델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미덕을 장려하며 재화를 배분하는 접근법으로 제시한다. 그는 처음 책을 펼쳤을 때부터 우리에게 기관사가 되어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질문을 내던지는 데, 시속 100km로 멈추지 않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섯 명과 한 사람 중 여덟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태라면 누구를 죽이겠는가에 대해 물

어본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장을 더 추가하여 그 한 사람이 당신이 가장 소중한게 여기는 가족이라면, 과연 아까처럼 주저 없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소수의 사람은 공리주의라는 원칙으로 가족이지만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또한 그렇다고 다섯 명을 죽이겠다는 선택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그의 가치관대로 책을 쓰는 것이 아닌, 독자들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정치학에서 다뤘던 고대 학자들의 정의관에 대해서도 함께 적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신자유주의 학파까지 거의 모든 학자, 학파들의 견해를 드러내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벤담의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만약 어떤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있고 그 소녀를 감금하고 고문한다고 한다면는 조건으로 다른 모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때 벤담의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시하는 공리주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소녀를 감금하는 편이 훨씬 정의에 가깝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어도 공리주의를 추구하는 벤담의 관점에 다른 학자들(칸트의 공리주의 등)으로 바꿔 적용시켜 설명하는 등 자칫 너무 딱딱하고 전통적인 방법만을 추구 할 것 같은 독자들에게 여러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자들과 연관시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안락사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제시하면서 함께 다룬다.

마지막으로 샌델은 '롤스' 학자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권리'와 '자격'에 대해 언급을 한다. 롤스는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덧붙여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에 대한 미덕과 자격을 가져서 분배를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사회에 우연히 부합하여 합의에 의해 받는 권리 뿐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온 좋게 그 사회에서 부합하는 자질을 가져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도, 우연히 그 사회에 부합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해서 안 된다고 말한다. 각자 다른 요소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공공사회가 어디서든 존재할 것이고,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는 말한다.

사실 이 글은 철학적인 이론을 실제 상황에 비유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애국심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실려 있기에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분쟁에 대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러나갈 미래사회에서도 떨어지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고민 끊임없이 하길 바란다.



이달의 영화-영주

복수를 저버린 외로움이란 감정



- 영화제목 : 영주
- 영화감독 : 차성덕

부모를 실수로 죽게 만든 원수가 자신과 같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일 뿐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런 그들에게서 애정을 느낄 수 있을까? 영화 '영주'는 배우 김항기를 주연으로 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알려진 감동적이며 가슴 한편이 쓰러린 영화이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영주는 19살의 가장이 된다. 학업까지 포기하며 생계를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던 영주는 동생인 영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영인이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였지만 제대로 된 소득도 직장도 없는 그들에겐 턱도 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영주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려고 대출까지 신청하지만 사기를 당한 채 세상에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영주가 찾아간 곳은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가해자의 집이다. 영주가 찾아낸 가해자는 두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부부였다. 우선 당장에 돈을 구하기

위해 영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무작정 그들의 두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원수인 가해자의 돈을 털어서 영인의 합의금을 내려고 한 것이었다. 과연 영주는 돈을 훔치고 달아날 수 있었을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영주에 대한 태도와 심경의 변화이다. 영주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가해자에게서 무엇이라도 얻어내고 싶었다. 가계를 털고 도망가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따뜻한 한 부부일 뿐이었다. 그들은 영주가 가게의 돈을 들고 도망가려 했던 것을 알고서도 영주의 사정을 이해하고 서슴없이 돈을 쥐여주기까지 한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상상과는 다르게 이들도 자신과 같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때부터 영주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과 함께 두 갈래의 갈림길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가해자의 부인(향숙)은 영주를 보며 현재 식물 상태가 된 제 아들을 때울려고 동기화되어 영주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아껴준다. 영주는 처음에 그런 향숙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향숙이 영주를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었고, 영주는 그들에게서 부모님의 존재를 대신 느꼈기 때문이다. 절없는 동생은 사고 치기 일쑤였고 그런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오던 영주를 보살펴 주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일을 향숙과 상문이 대신해주었고 영주는 이들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간다. 그동안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영주의 더 맑은 웃음은 보는 내내 가슴 한편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영화는 꽤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당장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하나뿐인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영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후반에 영인이 영주가 일하고 있는 곳이 가해자의 가게임을 알게 되고 따지자 영주는 말한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던 영주는 마음속에 쌓여있었던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영주는 잘못이 없다. 그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반항이 심한 동생을 두었을 뿐이다.

영화 초반에는 관객의 슬픔을 조일 정도로 답답한 장면을 연출한다. 크게 소리치고 반항해두었으면 하는데 영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동안의 묵혀왔던 영주의 화는 영화 후반에 영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 장면은 영화 '영주'에서 인상에 깊게 남은 장면 중 하나이다.

그 대화 속에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처지를 말한다. 그런 영주는 다음으로 향숙과 상문에게서 느낀 애정을 말한다. 그동안 받아오지 못했던,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영주의 행동을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영주는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 영주에게 크게 작용되면서 향숙과 상문에 더 매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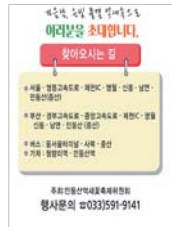
영화는 영주의 표정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가해자는 당연히 원수소 취급되어야 하는 결과?



축 제·공 연 소 식

민동산 역사 꽃 축제

- 기간 : ~11.10(일)
- 장소 : 강원 정선군 민동산 일원
- 주최 : 민동산 역사 꽃 축제위원회



하동 북한 코스모스 메일 꽃 축제

- 기간 : ~10.06(일)
- 장소 : 경남 하동군 북한면 직전리 북천역 앞
- 주최 : 북한 코스모스 메일꽃 영농조합법인



김제 지평선 축제

- 기간 : ~10.06(일)
- 장소 : 김제 벚골제 일원
- 주최 :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진주 남강유등 축제

- 기간 : ~10.13(일)
- 장소 : 진주성 및 남강 일원
- 주최 : 진주시·진주문화예술재단



산청 한방 약초 축제

- 기간 : ~10.09(수)
- 장소 : 산청IC 입구 축제광장
- 주최 : 산청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기간 : ~10.06(일)
- 장소 :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내 일원
- 주최 : 안동시



부산 불꽃축제

- 기간 : ~11.02(토)
- 장소 : 광안리 해수욕장
- 주최 : 부산광역시



나나랜드, “나는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엘포인트 블로그

요즘 떠오르는 말이 있다. 바로 나나랜드다. 나나랜드는 2019년을 대표해 유행하는 말이다. 나나랜드는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나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추세를 일컫는 말이다.

나나랜드는 지난 2018년 흥행을 이룬 영화인 '라라랜드'에서 비롯된 말로서 '라라랜드'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위한 별들의 도시를 지칭한다면, 나나랜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른바 나나랜드들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 라라랜드라는 영화에서 시작된 말이 2019년에 대표되는 신조어가 됐다.

이를 보면 영화의 과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 단어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나랜드, 즉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준이 되는 나나랜드들은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자기 톡 긍정주의'에 따라 제형에 상관없이 자기 몸이 가장 잘 맞고 편한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이 그 예다. 나나랜드 유행에 맞춰 화장·웃 업계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여성 속옷의 경우 화려한 디자인에 몸매를 보정해주는 속옷보다는 기능에 중

심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속옷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남성용 정장 구두나 키높이 깔창, 여성용 높은 굽 구두의 판매량이 줄고 있는 반면 굽이 낮은 단화의 수요가 늘고 있다. 또 자존감과 관련된 서적이 연이어 화제에 오르는 책으로 선정되는 등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이다.

나나랜드들의 소비가 움직이는 만큼 업체들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나랜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소비로 산업 측면에서는 '다품종 생산', '맞춤형 생산'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냉장고를 선보였으며, 엘지전자는 나나랜드라는 신인류와의 소통을 위해 '엘지전자 신가전 고객 자문단'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가전제품 기획에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들을 자문단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화장·웃 업계는 이같이 소비자 유행에 발맞춰 나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참여형 포토 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맞춤 제작 홍보 제품 등을 출시하며 활발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나나랜드의 열풍은 여기서만 활발히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다. 미술 또는 예술 쪽



▷사진출처 - 네이버 씨앤씨 미술학원 블로그

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예로 사바나 미술관에서는 나나랜드를 주제로 '나답게 산다'라는 제목을 걸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바나 미술관은 전시로 '나나랜드-나답게 산다'를 열었다. '나나랜드-나 혼자 산다'는 기획 의도는 가장 나다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변화 및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것임이다. 전시는 영화 '라라 랜드'를 차용했고,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다.이 전시는 자기만의 삶과 도전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주인공들처럼, 현실 세계 속 이 같은 삶에 주목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의 구성은 사진, 설치,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작품 등 형태가 다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전시로 진행될 정도로 나나랜드의 열풍은 거세다.

전시는 주제처럼 자신에게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빠르게인 신재는 최진연 작가의 1인 가구의 사진관을 빠르게 증가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자 기획된 작업이다. 작가가 설치한 공간 속 소파에 앉아서 혼자 또는 다른 대상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구해영 작가의 작품은 관객의 참여형 작업이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식 기제로 이름을 추천하

고 부여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고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는 '나답게 산다'라는 전시에 영감을 준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때에 나 홀로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는 자유의의 정 의임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획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목원대 산업디자인 학과에서는 졸업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나나랜드에서 생각했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신의 취향과 기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세상을 뜻하는 '나나랜드'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삶에 있어 '나'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주목해 '나의 하루'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이처럼 그대로를 표현하고 탐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나'에 대한 관심과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치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충청뉴스, 네이버 블로그,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한글날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세종대왕의 모습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글은 곧 훈민정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글날은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됐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의 제작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로 등록되기도 했다.

한글 창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됐다. 한글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거히 세계적이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창제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뤘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특별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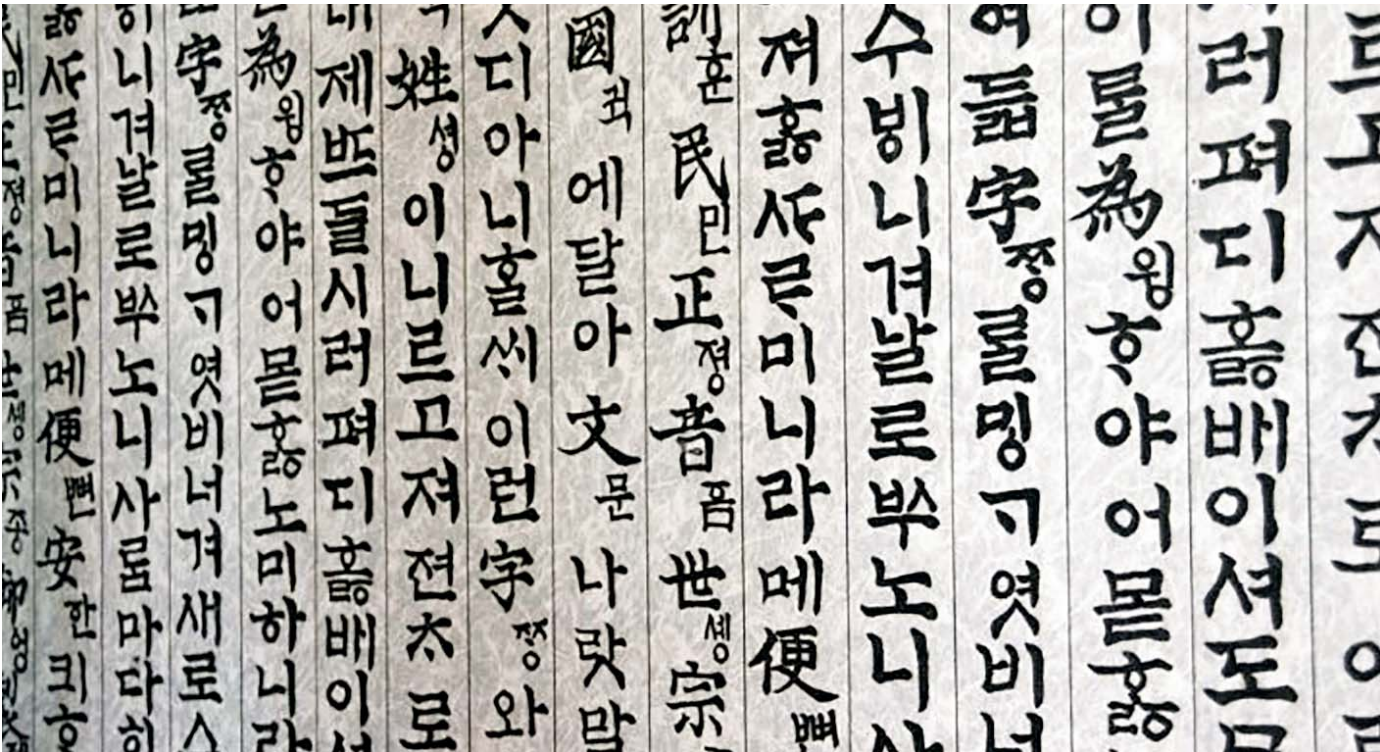
한글날로 재정되기 까지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이라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음력 9월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세종실록』 28년(1446) 9월조의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한 것

이며, 이름을 가갸날이라 한 것은 그때 아직 한글이라는 말이 보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을 ‘가갸갸갸...’, ‘나냐너너...’ 하는 식으로 배울 때였기 때문이다. 이후 1910년이 될 때까지도 한글의 쓰임은 전혀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다.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음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그러나 이 환산 방법에 의문이 생겨 1446년의 음력 9월 29일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한 결과 10월 28일과 일치하여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던 중 1940년 경복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에 정인자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 훈민정음, 곧 한글을 반포한 날이 더 확실하게 밝혀졌다.

이후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된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난 이



▶훈민정음의 일부 사진

후다. 곧 ‘정통 11년 9월 상한’의 ‘9월 상한’을 9월 상순의 끝 날인 음력 9월 10일로 잡고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1946년에는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거국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한글날 기념행사는 민족주의 국어 학자를 비롯한 소수 유지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한글날 행사가 전국적인 것이 되고 해마다 큰 기념식을 했다.

1970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한글날은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1990년에 휴일이 많은 것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됐다. 그해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더불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이 됐고,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됐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활동인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

동’의 결과로 200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현재는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타 문화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며 기념식을 하고, 국어의 연구와 발전, 해외보급에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훈포장을 주고 표창을 주어 한글날을 기린다. 이외에도 한글을 기리는 문화 공연, 전시회 같은 행사와 더불어 민간 한글 관련 단체가 세종대왕 동상에 꽃바치기, 국어학 학술대회 같은 행사를 한다.

한글의 의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맡은 있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는 없었다. 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받는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글자다. 말을 글자로 적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지식과 정보, 자

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다. 또한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변형하여 쓰거나 그대로 썼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한글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줄어들수록 우리나라는 문화 황금기를 누리고, 경제가 발전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지내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출처 -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블로그, 이주철 기자
soo4793@gmail.com

우리말 제대로 알기



▶언어문화개선운동의 대표 문구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한 우리나라 고유 문자다. 창제 당시 한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으로, 28개의 문자였지만, 현재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뤄져 있다. 자음은 발음할 때 변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모음은 하늘을 상징하는 ‘ㆍ’, 땅을 상징하는 ‘ㅡ’, 사람을 상징하는 ‘ㅣ’를 결합해 만들었다. 소리를 기호로 표현한 표음문자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5,000자 가까이 알아야 하는 한자와는 달리 24개의

문자만으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매년 문맹 퇴치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수여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등으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 많은 말들이 일본어와 섞여 있다.

사람들이 많이 논하는 단어 중 하나는 ‘닭도리탕’. ‘닭볶음탕’이다. 사실 ‘닭도리탕’의 순화어는 ‘닭볶음탕’이다. 이는 ‘닭도리탕’의 구성을 ‘닭’으로 보기 때문 이다. 또한 순화어는 순화 대상어의 단어

예쁜 우리말로 생일 읽기

1월	해오름달 새해 아침에 힘있게 오르는 달	1일	하루	17일	열이레
2월	사랑달 일생 추위와 꽃샘 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 달	2일	이틀	18일	열여드레
3월	봄오름달 피와 물에 물 오르는 달	3일	사흘	19일	열이흐레
4월	입새달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 돋우는 달	4일	나흘	20일	스무날
5월	푸른달 마음이 푸른 모든이의 달	5일	닷새	21일	스물하루
6월	누리달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차 넘치는 달	6일	엿새	22일	스물이틀
7월	건우작대기 만나는 아름다운 날	7일	이레	23일	스물사흘
8월	티오름달 하늘에서 해가, 땅위에선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	8일	여드레	24일	스물나흘
9월	열매달 가지마다 열매맺는 달	9일	아흐레	25일	스물닷새
10월	하늘연달 밤낮없이 아침의 나라가 열리달	10일	열흘	26일	스물엿새
11월	미풍달 가을에서 겨울로 차가운 달	11일	열이틀	27일	스물이레
12월	매듭달 마음을 가다듬는 한해의 꼬트머리 달	12일	열이틀	28일	스물여드레
		13일	열사흘	29일	스물아흐레
		14일	열나흘	30일	서른날
		15일	열닷새	31일	그믐날
		16일	열엿새		

▶순우리말로 표기된 생일 읽기

구성 방식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에 따라 순화 대상어 ‘닭도리탕’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것의 순화어를 ‘닭볶음탕’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볶음’과 ‘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볶음 탕’이라는 말을 쓴 것인데, 현재 사전에는 ‘볶음 탕’과 같은 음식 관련 용어가 실려 있지 않은데, 그러한 조리 방식으로 만들 어지는 음식의 이름에 ‘볶음 탕’을 쓸 가능성이 상정할 수 있음으로, 이것을 잘못 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일본어

가 섞여 있거나 일본어 잔재 어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흔히 쓰는 ‘시 말서’라는 단어는 일본식 조어로 구성된 단어이며, 올바른 표현은 ‘경위서’이다. ‘진검승부’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일본도(진검)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정면승부’이다. ‘애매하다’라는 표현 또한 일본 잔재 어인 데, 올바른 우리말은 ‘모호하다’이다. 군 대에서 흔히 쓰는 ‘고장’이라는 말 또한 잔재 어이며, 올바른 표현은 ‘선임’이다. ‘역지사지’ 또한 우리말은 ‘진액’이다. 중국

집 음식 메뉴 중 하나인 ‘짬뽕’은 ‘조마면’이라는 우리말이 있지만 사실상 ‘조마면’이라는 단어보다 ‘짬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소보로빵’ 역시 ‘곰보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소보로빵’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은 사실이다.

놀랄게도 행정용어와 특정 분야에서 또한 일본식 용어가 사용되는데, ‘감봉’이라는 말은 ‘봉급 깎기’라는 말로 사용 가능 하며, ‘파세’라는 말 역시 ‘세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국기 게양식’에서 쓰는 ‘게양’이라는 말은 ‘올림’이라는 용어로, ‘감사’라는 말 역시 ‘지도감사’로 사용 가능 하며 ‘심비’ 역시 ‘발값’이라는 단어로 사용 가능하다. ‘인수인계’라는 단어도 ‘넘겨받음, 넘겨줌’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행선지’ 역시 ‘가는 곳’으로, ‘간식’은 ‘새창’으로, ‘견학’은 ‘보고 배우기’로, ‘고객’은 ‘손님’으로 사용 가능하며, ‘세 대주’라는 단어 역시 ‘가구주’라는 말로 대체 가능하다. ‘승강장’은 ‘타는 곳’으로, ‘노점’은 ‘거리 가게’로, ‘육교’는 ‘구름다리’로 우리 생활 속에서 순화시켜야 할 용어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말은 곧 정신을 담은 그릇이라고 했다. 일본식 용어를 비롯한 서구어 등의 우리말 순화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며 “국립국어원은 일본식, 서구식 용어 등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말 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잔재 어가 아닌, 한자도 섞이지 않은, 순우리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의 ‘가온’, ‘강처럼 너르고 부드러운 흐르듯 살라’는 뜻의 ‘가람’, ‘그린 듯이 어여쁜 날개’라는 뜻의 ‘그린나래’라는 것들이 있으며,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한 다’는 뜻의 ‘핍’이라는 말도 있다. ‘참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나라 찬’으로, ‘날개처럼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은 ‘나래’로, ‘나비처럼 어여쁘다’는 뜻에서 ‘나

예’로, ‘늘 봄처럼 상쾌하다’는 뜻에서 ‘늘봄’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모든 일이 다 온다’는 뜻의 ‘다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흔히 이름에서 자주 쓰이는 ‘다은’이라는 말은 ‘따사롭고 은은한 사람’을 뜻한다. ‘모두 다 원하는,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다원’이라는 단어도, ‘복스럽고 건강하다’라는 뜻에는 ‘도망’이 있다. ‘모퉁이를 비취주는 해’라는 뜻의 ‘도해’라는 단어도 있다. ‘마법전사미르가 온’이라는 예전 드라마에서 ‘미르’라는 뜻은 ‘용’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가온’은 앞서 말했듯,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이다. ‘산다라박’이라는 가수 이름 역시 순우리말인데, ‘산다라’는 ‘굴세고 꽃꽂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수 ‘임슬옹’의 ‘슬옹’ 역시 순우리말이며, ‘슬기롭고 웅골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리수’라는 단어 역시 우리말인데,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고구려 때 한강을 부르던 말로, 지금은 서울특별시 수돗물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커다란 산처럼 넓은 마음을 지닌다’라는 뜻의 ‘큰마루’, ‘커다랗고 높다란 고개처럼 사람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어라’라는 뜻의 ‘큰재’, ‘어여쁘고 바르게 키우겠다’라는 뜻의 ‘키움’이라는 말도 있다. ‘도토리처럼 작지만 아부지고 웅골차다’라는 뜻의 ‘토리’라는 단어도 있으며, ‘사람의 필필이나 여러 가지 틀이 크다’라는 뜻의 ‘틀큰’이라는 단어도 있다.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다’라는 뜻의 ‘통꽃’이라는 말도 있으며 ‘여디서나 예쁘고 고운 티가 나다’라는 뜻의 ‘티나’라는 말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 의 가구 제조, 유통기업인 ‘한샘’은 ‘끝없는 발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국어사전, 다음블로그 최경환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락]▷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김다경 기자
noijk4@gmail.com



10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만 대학 생에게 있어서는 과제의 계절이다. 디지털 콘텐츠란 학부의 특징답게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처하시는 몇몇 교수님 덕에 아침과 밤이 뒤바뀐 새내기에는 몇 가지의 규칙을 세워 보았다.

첫 번째로 정한 것은 목욕을 매일 빼먹지 말고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더러운 소리일까 싶겠지만 샤워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10월이 시작되면 쌀쌀해지는 날씨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집에 꼭 박혀있는 은둔자 모습으로 바뀌면서 기숙사나 집에서 졸졸 전자 타지지만 두드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가장 귀찮아지는 게 '목욕'이다. 만약 목욕이 너무나도 싫다면, 간단하게 세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나기 시작하는 뽀루지들은 뒤처리가 힘들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을 친구들이랑 먹는 것이다. 강의를 듣고 나면 열심히 공부할 한 사람이든 아니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것이다. 긴 시간의 힘든 수업을 들은 후, 커피라면과 같은 영양소가 불균형한 음식으로 소중한 한 끼를 때우지 말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또는 적당히 들어있는 맛있는 한 끼를 먹어야 한다.

2학기 과제를 대처하는 나의 준비

송은유 (디지털콘텐츠·1)

맛있는 밥과 오순도순 모여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만남을 나누다 보면 그날 하루의 일개 모르게 쌓였던 화병이 조금은 개운해진 것이 느껴진다. 매일매일을 과제와 공부에 치여 사는 나에게 한 시간 정도의 여유는 절대 사치가 아니다. 있을 때 누리고,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시험공부를 하러가든 밖에 나가서 하자는 것이다. 집이나 기숙사는 안락한 공간으로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면 넓고 싶고 누우면 공부는 사라져 머릿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찾고 있을 것이다.

예초에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마음 먹어도 3일 간다는 말이다. 도서관, 자가게 등 조용하고 공부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향하자. 그렇다면 이번 중간고사의 결과를 그나마 안정적인 점수로 낼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 '10분만 전자기기를 하고 공부하자!'라는 열도당토않는 마음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몸을 가꾸기 위한 선택으로 운동은 자유롭게 선정했다. 일단 저녁에 가볍게 산책하기로 정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가꾸자!'가 아니다. 개인적인 전공의 특성상 전자기기 앞에 장시간 앉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

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그나마 있었던 몸의 근육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디 모를 몸 곳곳이 많이 허약해진다. 그러다 방학이 되면 그동안 잘 먹고 생활 운동을 해 말린 인삼에서 다시 사탕으로 돌아오지만, 개강과 동시에 다시 약순환의 시작이다.

그런 약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나마 여유가 되는,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밤 산책을 하러 나간다. 한 시간 정도 휴대전화기는 잠시 넣어 두고 걷다 보면 이런 저런 공상에 빠지는데, 바쁘게 10월 한 달을 복습하고 있어 생각을 정리하고 깊게 생각에 빠져 있을 틈이 없던 하루에서 잠시나마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산책을 마친 새벽부터는 전에 없던 상쾌한 기분으로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유가 생긴다.

이런저런 계획과 규칙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정리하다 보면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중간고사도 금방 지나가고 다음은 기말 과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말고사도 보내고 나면 또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겨울 방학이 온다. 벌써 새내기가 끝나 버렸다고, 나는 이제 한 내기라고 말하며 새로 시작되는 학기에 만나는 이제는 재익숙해진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과정은 당연하지만, 아직 대학생이란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 바버거러던 1학기를 뒤돌아보며,

오피니언

죽비소리

가을, 익숙한 설렘

송유민 (방송영상·1)

흔히들 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 한 해의 시작, 한 살 더 먹은 나의 시작, 새 학기의 시작, 참 많은 것들이 시작된다. 나에게 2019년의 봄이라고 하면 처음 성인으로 맞은 봄이었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그래도 새로운 곳의 시작이라는 설렘을 안고 입학하였다. 처음으로 수강신청을 했고 새로운 시작에 발을 담갔다. 부모님 걱정을 뒤로 두고 밤새 친구들과 놀기도 하였고 또 시험 기간에는 음료를 마시며 도서관에서 공부도 해보았다. 고등학생 때와 비슷한 것 같았지만 그때와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하지만 20살이 되어서 아직 나의 생각은 바뀐 게 없었고 늦잠을 자는 습관과 꼼꼼하지 못해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였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학교생활에 진땀을 빼기도 했었다. 주변에서는 나를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미성년이었던 작년과 성년이 된 현재는 바뀐 것이 없었다.

대학에서는 이미 성인이 된 나를 책임져줄 사람은 없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뒤에서 챙겨줄 사람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 대신 어려운 것을 대신 해줄 사람도, 내가 이해를 못 한 채 어리둥절해 할 때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성인의 책임을 배우고 있었다. 원하는 정

보는 직접 찾아야 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이해해야 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정말 고생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는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찾아왔다.

언제부터인가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겹옷을 들고 다니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를 피하였다. 햇빛은 똑같이 뜨거웠지만 웬지 모를 시원함에 발걸음이 한 층 가벼워졌다. 하늘이 한 층 높아졌고 하얗게 고개를 들면 불그스름한 노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머리와 옷에도 가을의 향기가 묻어있었다. 등곳길에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옷차림이 다시 두꺼워졌다.

낯설기만 했던 등곳길이 편안해졌고 정신없던 시간표가 여유롭게 느껴졌다. 모르던 것 투성이었던 학교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질 때쯤, 주변은 그대로였지만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버스에서 내릴 곳을 놓칠까 하는 긴장이 사라지고 익숙함이 생겼다. 버스에서 졸기도 하고, 노래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으며 휴대폰 대신 책을 읽으며 버스 안의 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휴대전화만 보며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하늘을 보는 횡수가 찾아졌다. 혼자

드는 강의 때도 다른 강의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같이 듣는 강의도 혼자 듣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밖의 풍경은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며 낯설어졌지만 학교 안의 풍경은 더욱 익숙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학식을 먹은 횟수보다 학교 원탁에서 먹는 배달음식의 수가 더 많아졌고, 학교 근처 가보지 않은 식당보다 가본 식당의 수가 더 많아졌을 때, 비로소 가을이 왔다.

아직은 20살이라는 말이 어색하다. 아직도 나에게 20대의 나이는 무겁게 느껴지고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느껴진다. 교복 입은 아이들을 봐도 나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취업보다는 당장 오를 먹을 저녁이 더 걱정되는 나이다. 잠과 실수가 많으며 낯선 학교 시스템에 진땀을 빼고 있지만 어느샌가부터 크고 작은 실수에는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낯선 시스템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적응해가고 있었다.

푸른 나무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것처럼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와 같이 점점 바뀌어가는 나를 돌아보고 싶다. 가을로 물든 학교를 보면 낯설기만 했던 1학기 때와 달리 2학기 때의 걸맞은 큰 꿈을 품으며 또 다른 시작을 꿈꾸고 있다. 봄에 다짐한 목표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계획과 함께 또다시 익숙한 설렘을 느껴본다.

이달의 명언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악버트 아인슈타인

인생은 외국어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못 발음한다.
—크리스토퍼 홀리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진정한 우리들 훨씬 작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조엘 K. 토크

네 컷 만화

맞춤법



새로운 4컷 만화와 만평을 그리게 된 디지털 콘텐츠 학부 3D 애니메이션 트랙 정희진입니다. 4컷 만화는 우리 학교 학생인 디지털 콘텐츠 학부 진희, 간호학과 하서(진 머리), 경찰행정학과 지은(짧은 펴)의 학교생활을 컨셉트로 잡았습니다.

사설

"너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주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거야."라는 대답을 흔히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싶어."라는 대답을 더 자주 들을 수 있다. 비혼주의자들은 자발적 미혼이라는 점에서 미혼으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미혼이 '결혼은 꼭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다면, 비혼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보다 주체성이 들어간 의미이다. 또한 독신과도 구별이 되는데, 비혼은 독신과 달리 결혼만 하지 않을 뿐이지, 연애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며 동거나 공동체 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 비혼을 선언하는 비혼주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통계 포털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혼주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혼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결혼을 자신을 구속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출산, 육아, 시댁, 처가며 등이 그러한 요소이다. 비혼주의자들은 이런 스트레스에서 탈피해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 비혼주의자들은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보다 아해졌다. 오히려 편안해하고 즐기며 행복해하는 경우도 파다하다. 이는 홀로 쓸 수 있는 문화와 취미생활의 폭이 더 넓어진 덕이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시선이 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을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면접 선발하는 인사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관점으로써 지원자의 진실성을 우선시하여 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실성이란 정직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다. 진실성의 사전적 의미는 '잡되고 바른 성질이나 품성'이라고 한다. 이런 인성과 성품은 의도적으로 보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부터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흔들러 대는 환경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심성과 인격을 갖춘 채 진실함을 가지고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를 자문하여 보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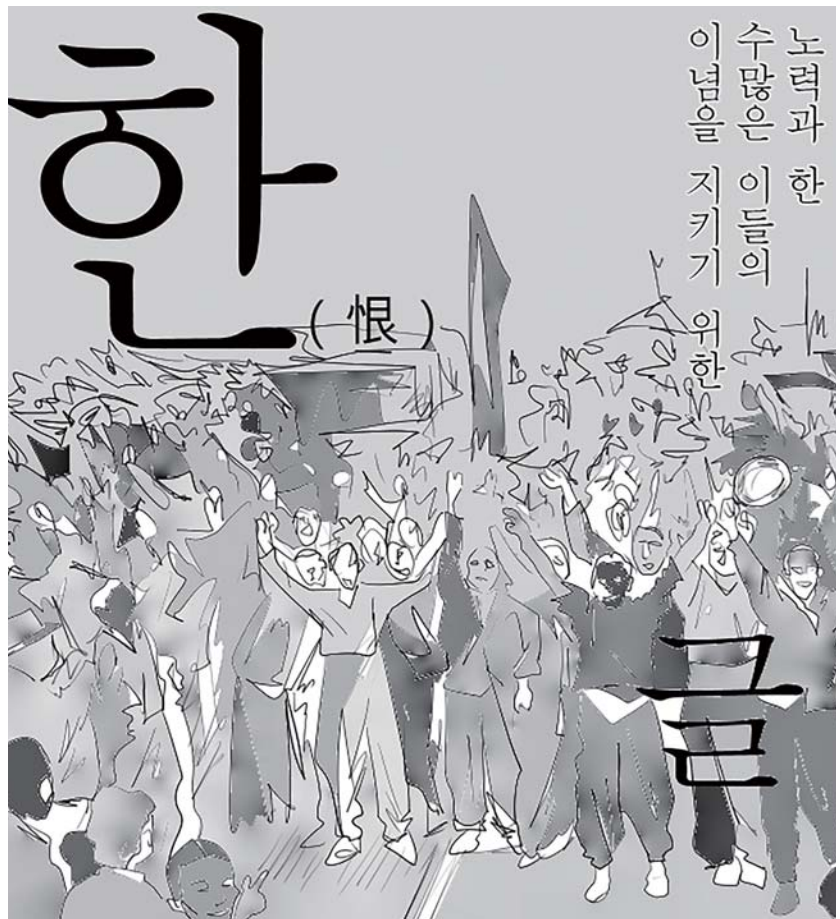
진실성

총체적으로 거짓말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묵시적 압력을 받을 때가 많다. 그리고 적당하게 위선을 타협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다. 정작 사회의 각 계층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때를 따라 거짓말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비정당한 사회가 되어 있는 것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여기에 동화되어 타협하면서 살아선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실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찾는 곳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진실성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 51:6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둡고 씩어가는 세상이라도 활자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성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도자적 자질을 대학에서 연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내면의 죄성(罪性)을 제거하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힘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

가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요한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품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악과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진실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다. 다음으로는 외부로부터 내 속에 침투하도록 내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잠 4:23 모든 자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아무것이나 들어와 짓밟게 놔두는 것은 안 된다. 서양 속담에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착한 수 없으나 내 머리 위에 동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인 사람만이 '절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아무나 내 속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거나 영기에 해서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진실함이 손상되지 않고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과 진실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한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역대 축석루 시문 대집성> 출간 인터뷰-동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 하강진 교수

축석루 누각의 시들을 번역한 하강진 교수의 진솔한 인터뷰



▶ 동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하강진 교수

A. 어디든지 장소를 탐방할 때 그 지역

A. 종으면서도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
다(유승, 개인적으로 '신병조'의 시가
인상에 제일 깊었던 것 같다. 신병조는
시물선비로서 축서투에 남긴 세 생애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임진왜란 후에
방관했던 축서투를 보자마자 삶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에 축서
투를 찾았던 문인들은 삶과 죽음을 택하
는 마음으로서 시를 지었다. 그런 그들의
자세와 의지, 사회적 태도, 양심이 무엇
인지 깊이 새겨지는 공간으로서 다시 한

A. 현재 목표를 하니 있는데 바로 한국 문학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영남부와 부북부를 완성해야 한다. 한국문화의 특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축식부 제영시 번역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만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평양에 있는 부북부를 먼저 가보고 싶다. 하루빨리 누각들의 시를 이 번역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도록 하고 생각하고 바란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나바).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며 사도 성 바오로와 함께 팔레스티나와 시리아를 벗어나 이방인 전교에 앞장섰던 선구

그는 개종한 바오로를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몇몇 사도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바오로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에 대한 사도들의 좋은 평가

그들이 안티오키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더 넓은 이방인들의 세계로 전교를 벌였다. 바르나바와 고을의 활동 무대로 삼았고 여기에는 바르나바의 조카 요한 마르코를 협력자로 대동했다. 전교가 끝나자 이때부터 바르나바가 지도자가 되어 안티오와 바르나바는 남쪽 소아시아로 향했다. 여기서 많은 이방인들을 회개시켰으나 유다 회당의 박해를 받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환영회를 이방인들이 바르나바를 그들 신들의 우두머리 신으로 확충했고 바로로를 신들의

바르나바가 히브리서를 쓴 장본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바르나바의 편지」는 130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분명히 그의 편지는 아니다. 그는 교회의 창설자이며, 전설에 따르면 밀라노 교구 창설자 중의 한 사람이며 밀라노의 첫 주교였다고 한다. 이는 488년에 바르나바의

1세기 경의 사도들 중에서 교우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스스로 노동해서 생계비와 전도비를 벌 사도들은 바르나바와 바울로뿐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에우세비오스는 그가 루가 복음 10장 1~12절에 언급되어 있는 72명의 제자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키르로스 섬에서 순교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외국어랑 오탈자 찾고 상품 받자!’



(기사 제목, 기사내용안의 제목의 경우 제외)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과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10월 25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
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10월 28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